



해외빈곤연구동향: Pro-poor 성장

Overseas Poverty Trend : Pro-poor Growth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관한 문제는 IMF위기이후 과거에 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빈곤지수의 변화 즉 소득변화 혹은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율, 빈곤갭 비율 등의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성, 연령, 학력 등에 따른 빈곤의 변화를 살펴보는 미시적인 분석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빈곤에 대한 동태적인 연구들이 일부 있을 뿐이다. 반면에 세계은행(World Bank), UNDP 등 국제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거시경제변수와 빈곤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경제성장을 통한 몫이 빈곤층에게 어떻게 분배되고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라 할 수 있다¹⁾.

위와 같이 새롭게 거시경제변수인 경제성장과 빈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야가 Pro-poor Growth(친빈곤적 성장 혹은 빈곤 친화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Pro-poor 성장이란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국가의 부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나 소득이 저소득층 특히 빈곤층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분야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2000년대 들어 국제기구나 빈곤연구자들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른 Pro-poor 성장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미시적인 빈곤률 이외에 거시경제라는 변

1) 성장몫에 대한 분해 초기연구는 G. S. Fields의 1975년 연구라 할 수 있음. 동 연구는 비교정태분석을 기초로 성장몫을 네부분으로 분해하였지만, 단점으로는 성장몫에 대한 잔차가 남아 있다는 점임. 동 연구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는 김적교(1987), 김미곤(2005) 등에 의해 연구된 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여유진, 김미곤 외,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연구 2005-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참조.

수와의 관계를 통해 빈곤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빈곤 분석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Pro-poor 성장의 개념²⁾

Pro-poor 성장은 불평등, 빈곤, 성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 경제발전 및 빈곤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 Pro-poor 성장에 대한 논쟁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Chenery & Ahluwalia의 Pro-distribution의 논쟁에서 본격 시작된 것으로 “성장의 재분배(Redistribution with growth)모델”에서 논의된 것이다. 이후 World Bank의 Redistribution with Growth에 의해 중요성이 부각되었다(Kakwani & Pemia, 2000).

세계은행보고서(1990)에서는 Pro-poor 성장을 “광범위한 성장(Broad-based growth)”³⁾으로 표현한 반면에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서는 “Pro-poor 성장이란 노동 흡입적이며, 빈곤자들을 위한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들의 고용과 소득활동에 유리하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동반된 성장이다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외에 OECD(2000), UN(2000)에서도 별도의 방법으로 Pro-poor 성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⁵⁾.

UN 등 국제기구(IMF, OECD, World Bank)에서는 2000년 국제적인 발전을 위한 7가지 목표로서 빈곤, 교육, 양성평등, 영유아사망률, 성인사망률, 재생산을 위한 건강, 환경 등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 즉 Pro-poor 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Pro-poor 성장이란 단순히 빈곤 축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 유리한 보수조건하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여성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의 재산권, 협상력, 새로운 기술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한 경제정책은 건전하고 균형이 잡혀야 하며 지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UN, 2000).

Pro-poor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빈곤축소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빈곤축소는 인간의 복지(well-being)와 관련된 것으로, Amartya Sen은 복지란 기능(functioning)과 잠재적 능력(capability)⁶⁾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기능이란 성취(achievement)를 의미하며, 잠재적 능력이란 일반적으로 재화나 재화의 특성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ability)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능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what life people actually live)와 관련지어지며, 잠재적 능력이란 자유롭게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삶과 기능에 연결되어진다(the freedom people have in their choice of life or functionings). 설훈교수의 지적대로 빈곤을 정의 내린 후 Pro-poor 성장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게 된다. 즉 빈곤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과 경제활동을 통한 혜택으로써 정의되어질 수 있다. 동 이론의 결과는 사회내에 최소한의 잠재적 능력으로부터 박탈되어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성장으로부터 혜택을 작게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적·물적자본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알게 모르게 빈곤층에 비해 비빈곤층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는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gap을 만들게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Kakwani & Pemia, 2000). 또한 한 국가가 높은 경제성장률과 이에 따른 Pro-poor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있어 초기 경제개발조건, 각종 제도 및 정부정책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⁷⁾.

앞에서 지적한대로 Pro-poor 성장개념에 앞서 발전된 개념으로는 Trickle-down 개발이라 할 수 있다. Trickle-down 개발은 발전경제학의 주요 개념으로써 1950~60년대에 발전하였으며 부자로부터 빈곤자로의 수직적 분배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을 통한 첫 번째 혜택은 부자들이 소유하게 되며, 부자들이 소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간접적으로 빈곤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개념이다. Trickle-down 개념에 의할 경우 경제성장으로부터 빈곤층의 혜택은 부자들부터의 수직적 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혜택이 빈곤자들에게는 적게 돌아감을 의미한다. 반면에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왜냐하

2) 본 부문은 Kawani, N. & Pernia E. M.(2000), "What is Pro-poor Growth?", *Asian Development Review*, vol 18, no 1와 Ravallion, M.(2004), "Pro-poor Growth: A Primer",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242*, World Bank Group를 참조함.

3)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1990.

4) Growth is pro-poor when it is labor absorbing and accompanied by policies and programs that mitigate inequalities and facilitate income and employment generation for the poor, particularly women and other traditionally excluded groups(Asian Development Bank(ADB), *Fighting poverty in Asia and the Pacific: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y*, 1999.6).

5) OECD, "Rising to the Global Challenge: Partnership for Reducing World Poverty" statement by the DAC High Level Meeting, April 25-26, 2001. United Nations, *A Better World For All*, New York: United Nations, 2000.

6) 설훈교수의 Capability라는 용어의 해석은 김형규·안병근(1990)의 해석을 적용함. 김형규·안병근의 연구에 따르면 설훈은 빈곤의 절대적 개념을 강조하면서 잠재적 능력(Capability)이란 개념에 의해 빈곤에 대한 절대적인 접근을 시도함. 즉 생활수준을 대표하는 것으로 잠재적 능력을 취하면 빈곤은 '어떤 최소한의 "Capability"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된다고 주장함. (김형규·안병근, 「빈곤의 개념과 논쟁」, 『교육대학원논문집』 vol 22, 경북대학교, 1990.)

7) Ravallion, Martin, "Pro-poor Growth: A Primer",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242*, World Bank Group, 2004, March.

면 성장을 통한 혜택이 불평등 증가로 인한 역충격에 의해 상쇄되거나 작게 될 경우 오히려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Bhagwati는 “Immiserizing growth(궁핍화 성장)”라고 정의 내렸다.

Pro-poor 성장에 대한 정의는 적용에 있어 2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빈곤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우로, 즉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게 증가했음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의 빈곤지수가 더 감소하는 경우를 Pro-poor 성장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이다(Kakwani & Pemia, 2000).

두 번째는 절대적 측면에서 빈곤층에 대한 혜택이 비빈곤층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빈곤율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국가의 1인당 GDP가 상승함에 따라 빈곤율이 감소하는 경우를 Pro-poor 성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⁸⁾. 동 정의 하에서는 성장에 있어 정부정책 및 지리적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절대적 측면으로 Pro-poor 성장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 Zepeda⁹⁾는 동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며, 만약 고도성장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조금만 감소하고 오히려 불평등이 증가하더라도 동 정의 하에서는 이러한 성장도 Pro-poor 성장이라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Kawani, Khandlker & Son, 2004)¹⁰⁾.

위 두 가지 Pro-poor 성장의 차이를 쉽게 표현하면 국가의 경제가 음의 성장(혹은 소득이 감소)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정의 하에서는 두 비교시점 간에 빈곤지수가 감소하지 않음으로써 Pro-poor 성장이 달성될 수 없는 반면에 첫 번째 정의 하에서는 비록 음의 성장(혹은 소득이 감소)을 하더라도 빈곤층의 소득감소 폭이 비빈곤층의 소득감소 폭보다 작을 경우 Pro-poor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3. Pro-poor 성장의 측정

Pro-poor 성장의 측정방법은 두 가지 측면으로써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이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Ravallion, Martin & Chen, Shaohua, “Measuring Pro-poor Growth”, *Economic Letters*, Vol 78(1), 2003.
 9) Zepeda, Eduardo, “Pro-poor growth: what is it?”, *International Poverty Centre* September 2004 Number 1 one pager, UNDP, 2004.
 10) Zepeda의 지적한 개념과 비슷하게 Osmani도 절대적 정의의 단점을 지적함. 그러나 첫 번째 정의의 문제점도 동일하게 지적함. 일면 Kakwani 등의 정의한 Pro-poor에 대한 정의가 옳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편의(Bias)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 즉 A, B라는 두 나라가 있는 경우 A나라는 성장률은 낮지만 비빈곤층에 비해 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B나라는 성장률은 높지만 비빈곤층이 빈곤층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하자. 그러나 높은 성장률로 인해 B나라가 A국가에 비해 빈곤율이 더 많이 축소된 경우에 Kakwani의 정의하에서는 A나라는 Pro-poor 성장을 B나라는 Non pro-poor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함.

1) 절대적 측면

Ravallion & Chen(2003)은 연구에서 Rate of Pro-poor Growth(이하 RPP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Pro-poor 성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먼저 GIC(Growth Incidence Curve)를 기준으로 초기값에서 빈곤(율)지수까지 GIC아래 영역을 합한 절대적 Pro-poor 성장지수를 고안하였다. RPPG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_t^p \equiv \frac{dW_t}{dW_t^i} Y_t \dots \dots \dots (1)$$

여기서 g_t^p 는 t 기의 p 국가의 Pro-poor 성장률을 의미하며 dW_t 는 Watt 지수를 이용해 추정된 빈곤의 실질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dW_t^i 는 분배 중립적인 성장 하에 발생한 빈곤의 변화를 의미하며, Y_t 는 t 기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의 Pro-poor 성장지수는 빈곤(율)지수까지 각 분위별 평균 성장률로부터 고안된 것으로, 특정분위에서의 일인당 소득증가율이 전체 평균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를 Pro-poor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이는 모든 빈곤층의 평균소득증가율과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손현화(2003)의 연구에서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만약에 분배적 이동이 빈곤층에게 유리하게 나타난다면, Pro-poor 성장률은 일반적인 성장률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일반적 성장률이 Pro-poor 성장률보다 높게 된다.

표 1. RPPG 개념에 대한 도식

변수	소득		일반적 성장률 (평균소득 증가율) [=100 x (b-a)/a]	실질 성장률	RPPG (실질성장률 평균) [=(c+d)/2]
	첫번째 기간(a)	두번째 기간(b)			
x(c) 분위의 사람	100	120		20	26.7
y(d) 분위의 사람	150	200		33.3	
평균 소득	125	160	28.0		

자료: Son, Hyunhwa, “A new Poverty Decomposition”,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vol 1, 2003.

2) 상대적 측면

상대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는 Kakwani & Pemia(2000), McCulloch & Baulch(1999), Son(2003), Kakwani, Khandlker & Son(200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Kakwani & Pemia(2000)의 연구에서는 Pro-Poor Growth Index(이하 PPGI)를 도출하여 이

를 기초로 Pro-poor 성장을 측정하였다. Kakwani & Pemia는 비빈곤층에 비해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급여)을 받게 되는 성장을 Pro-poor 성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Kakwani(1997)¹¹⁾에 의해 제안된 빈곤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PPGI 지수를 제안하였다.

PPGI지수는 가법분해적인 빈곤지수(Addictive Separable Poverty Measures)¹²⁾를 기준으로 유도할 수 있다. 국가의 빈곤축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첫째는 경제성장률의 크기와 둘째는 성장에 따른 불평등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높게 나타날 경우 빈곤의 축소나 감소폭도 역시 지속적이거나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전체적인 불평등이 축소될 경우 국가내의 빈곤수준도 감소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δ 를 총빈곤탄력성(Total Poverty Elasticity)이라고 할 경우, 총 빈곤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분해가 가능하다¹³⁾.

$$\delta = \eta + \zeta \dots\dots\dots(2)$$

위 식에서 η 는 빈곤의 성장탄력성(Growth Elasticity of Poverty)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는 평균소득의 1% 성장에 따른 빈곤 비율의 변화를 의미하며, 단 성장과정 중 불평등변화는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동 탄력성은 항상 (-)의 값을 갖게 되며, ζ 는 빈곤축소에 따른 불평등효과(Inequality effect of poverty reduction) 즉, 비교연도 간에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변화에 따른 빈곤의 변화정도를 의미한다.

PPGI지수(ϕ)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hi = \frac{\delta}{\eta} \dots\dots\dots(3)$$

PPGI지수는 분배 중립적 성장 하에서 빈곤축소(η)와 총 빈곤 축소를 위한 탄력성(δ)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동 비율이 1보다 클 경우는 Pro-poor 성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동 지수는 빈곤축소율이 높더라도 증가하지 않는다. 즉, 총 빈곤탄력성이 빈곤의 성장탄력성보다 클 경우 Pro-poor 성장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위의 지수를 이용하여 태국과 우리나라의 Pro-poor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대부분이 Pro-poor 성장 지수가 1 이상인 것으로 우리나라는 Pro-poor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태국의 경우는 1990년대를 중심으로 분석시 Pro-poor 성장지수가 1 이하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빈곤율을 기준 Pro-poor 성장지수가 1990년 초 0.31에서 1998년은 0.73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McCulloch & Baulch(1999)¹⁴⁾의 연구에서는 성장의 빈곤편의곡선(Poverty Bias of Growth : 이하 PBG)을 도입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Pro-poor 성장은 불평등의 축소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PBG는 Kakwani가 주장한 대칭적 빈곤분해를 기초로 한 부의 불평등 요소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Kakwani에 의하면 빈곤은 성장효과와 불평등효과로 나눌 수 있으며, PPGI지수가 총 빈곤탄력성(δ)과 빈곤의 성장탄력성(η)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라면, 불평등효과(ζ 혹은 $(\Delta P)_1$)는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나, 개선시키느냐에 따라 (-) 혹은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기초로 연구자들은 전자와는 달리 PBG($\hat{\zeta}$)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hat{\zeta}) = -(\Delta P)_1 \dots\dots\dots(4)$$

즉, Pro-poor 성장의 평가를 위해서 PBG는 측정되어진 성장형태가 분배중립적인 성장과의 차이를 측정함을 의미하게 된다. 즉 연구자들은 분배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 측정된 성장과 실제성장과 비교를 통해 Pro-poor 성장을 측정하고 있다. 동 지수는 상대적인 Pro-poor 성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점으로는 PBG 값이 높더라도 빈곤은 성장효과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큰 폭의 빈곤축소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Son(2003)의 연구에서는 빈곤성장곡선(Poverty Growth Curve: 이하 PGC)을 이용하여 Pro-poor 성장을 정의내리고 있다. 즉 그녀의 연구에서는 절대적 및 상대적인 Pro-poor 성장을 포괄할 수 있는 빈곤성장곡선(PGC)을 제안하였다¹⁵⁾.

PGC는 빈곤변화에 따른 일반화 로렌즈곡선(-일반화 로렌즈곡선은 로렌즈곡선을 평균소득에 의해 그 형태를 변형시킨 곡선임-)과의 연계를 통해 고안한 모델이다. 일반화된 로렌즈곡선이 상방이동시, 이는 새로운 분배상태가 이전 분배상태를 넘어서는 2차 확률적 우위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¹⁶⁾. PGC는 만약 일반화 로렌즈곡선이 전적으로 상방(혹은 하방)으로 이동시, 빈곤은 모든 빈곤선

11) Kakwani, Nanak, "On Measuring Growth and Inequality Components of Changes in Poverty with Application to Thailand," Discussion Paper No. 97/16,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chool of Economics, New South Wales, Australia, 1997.
 12) 가법적(Additive)이란 전체인구로 나타낼 수 있는 빈곤지수는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하위그룹별(혹은 부문별)로 가중치를 준 상태에서 별도로 측정된 빈곤지수들의 가중합으로 재표현시 전체 빈곤지수와 동일하다는 것으로 빈곤지수의 주요공리중의 하나임.
 13) 총 빈곤탄력성(δ)은 두 비교기간간의 빈곤변화를 소득변화로 나눈 것으로, 총 빈곤탄력성에 소득증가율을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비교기간간의 빈곤변화 효과만 남게 됨. 따라서 실질적인 빈곤축소 정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됨.

14) McCulloch, N. & B. Baulch, "Tracking Pro-poor Growth: New Ways to Spot the Biases and Benefit", ID21 Insights Issue No 31,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1999.
 15) Son, Hyun H., "A note on Pro-Poor growth", Economics Letters 82, 2004.
 16) 확률적 우위(Stochastic Dominance theory)이란 Atkinson에 의해 통계학에서 응용되는 확률우위이론을 빈곤 및 불평등분야에 적용시킨 이론임(이준구, 2003). 이러한 확률적 우위이론에는 1차적 확률적 우위이론과 2차적 확률적 우위이론으로 나누어

과 빈곤율을 제외한 모든 빈곤지수에서 명백히 감소(혹은 상승)한다. 만약 성장이 Pro-poor(혹은 Pro-poor가 아니라면) 하다면, PGC곡선은 0~100분위 내에서 감소(혹은 증가)하는 곡선이 된다. 동 방법은 가구서베이조사 및 횡단면국가자료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며, 빈곤선과 빈곤지수 없이 추정 이 가능하다. Son은 PGC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g(p) = g + \Delta \text{Ln}(L(p)) \dots\dots\dots(5)$$

여기서 $g = \Delta \text{Ln}(y)$ 이며 전사회의 평균소득증가율을 의미하며, $L(p)$ 는 로렌즈곡선이다. 만약 $g(p) \geq 0$ (모든 분위에서)이면 그 성장은 빈곤을 감소시키며, Pro-poor 성장을 의미한다. 만약 $g(p) \geq g$ (모든 분위에서)이면, 빈곤과 불평등은 감소하며, 이는 Pro-poor 성장의 강정의 뿐만 아니라 일 반적인 정의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Kakwani, Khandlker & Son(2004)¹⁷⁾의 연구에서는 Poverty Equivalent Growth Rate 지 수(이하 PEGR 지수)를 이용하여 Pro-poor 성장을 측정하고 있다. PEGR지수는 Kakwani & Pemia(2000)의 PPGI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PEGR지수를 도입하고 있다.

$$\gamma^* = (\delta/\eta)\gamma = \phi \gamma \dots\dots\dots(6)$$

여기서 $\phi = \delta/\eta$ 로 Kakwani & Pemia의 pro-poor 지수를 의미한다. 식 (6)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 를 살펴보면, 만약 $\gamma^* > \gamma$ 이면 Pro-poor 성장을 의미하며, $\gamma^* < \gamma$ 이면 anti-poor 성장을 의미한다. $0 < \gamma^* < \gamma$ 이면, 성장이 불평등을 수반하지만, 빈곤축소도 함께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즉 trickle-down 효과를 설명한다 할 수 있다. 반면에 경제성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γ^* 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빈곤층에 대한 성장을 통한 혜택이 불평등 이 가져오는 효과가 성장의 효과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더 크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Bhagwati는 “Immiserizing Growth(=공핍화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의 PEGR지수를 이용해 앞에서 Kakwani & Pemia(2000)의 분석과 같이 태국과 우리나라 를 대상으로 Pro-poor 성장을 측정하였다. 앞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대부분이 PEGR지수가 1인당 실질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Pro-poor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태국의 경우에는 1992~1996년 사이에만 PEGR지수가 1인당 실질성장률보다 높아 Pro-poor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나머지 기간은 PEGR지수가 1인당 실질성장률보다 낮게 나타 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마무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ro-poor 성장이란 과거의 빈곤연구들과는 달리 단순히 빈곤지수만의 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층이 받게 되는 구체적인 혜택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성장에 의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단순히 빈곤지수의 변화만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변화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는 지금까지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또 한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을 통해 어느 계층이 혜택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 웠다. 그러나 Pro-poor 성장의 분석을 통해서 빈곤지수의 변화뿐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경제성 장에의 영향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Pro-poor 성장의 분석은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Kakwani & Pemia(2000), Kakwani 외(2004)의 연구에 의해 1990년 중반을 기준으로 지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 석되어진 바가 있다. 동 연구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Pro-poor 성 장을 이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동 분석의 단점은 지출자료와 도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Pro-poor 성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경제성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짐. Fields(2001)가 정리한 것을 기초로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차적 확률우위(First-order Statistical dominance)란 각 년도의 서베이 조사를 통한 후생(소득 혹은 소비지출) 혹은 빈곤비교를 위해 선정된 다양한 가구들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비교하는 방법임. 즉 빈곤지수에 대한 1차적 확률우위의 정의는 만약 A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FA라고 하면, ymin와 zmax 사이의 모든 빈곤선이 B(FB)분포보다 높거나 적어도 낮지 않을 경우를 A는 B에 1차적 확률적 우위에 있다고 부름. 다시 말해 만약 한 년도 혹은 한 집단의 소득분포가 비교대상이 되는 연도 혹은 집단의 소득분포보다 상위에 있을 경우, 상위에 있는 소득분포가 하위의 소득분포보다 확률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1차적 확률적 우위는 두 분포가 교차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만약 두 분포가 교차할 경우에는 2차 확률적 우위에 의해 비교할 수 있음. 2차적 확률적 우위란 결핍곡선(Deficit curve)을 분석하거나, 누적분포함수의 적분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임. 즉, A와 B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FA, FB라고 하면, 빈곤선 이하의 누적분포함수 영역을 합한 함수를 빈곤결핍곡선(Poverty Deficit Curve)이라고 하며, 만약 A분포의 빈곤결핍곡선이 ymin와 zmax 사이의 모든 빈곤선에서 B의 곡선보다 상위에 있거나 낮지 않은 경우를 2차 확률 우위라 부름.

17) Kawani, Nanak, Shahid Khandlker & Son, Hyunhwa, "Pro-Poor Growth: Concepts and Measurement with country case studies", UNDP working paper no 1, International Poverty Center, 2004. 8.